

임기철 제9대 GIST 총장 취임

GIST 이사회는 지난 7월 4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제9대 총장에 임기철 박사를 최종 선임했다. 임 신임 총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난 7월 7일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4년이다.

임기철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공학으로 학사학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에서는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임 신임 총장은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초빙연구원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서 기획조정실장과 부원장을 거쳐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원장,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부원장을 역임했다. 임 신임 총장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지난 8월 16일, GIST는 오통관 다산홀에서 임기철 GIST 제9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임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이며,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정한다", "혁신, 길이 없으면 우리가 만든다", "혁신의 여



취임식 중 임기철 총장이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정에서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진 길잡이가 되어 여러분과 동행하겠다"라며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임 신임 총장은 혁신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GIST의 잠재 역량 강화(Potential-Up) ▲공감과 포용의 리더십을 통한 공동체 정신 함양(Harmony-Up) ▲GIST의 지식 가치를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하는 체계 구축(Value-Up)을 내세웠다. 국가가 설립한 과학기술원으로서 GIST가 지

해야 할 가치와 목표에 관해서는 GIST의 앞머리 글자를 따서 (G)글로벌 지식자산 창출, (I)통찰이 담긴 기술혁신, (S)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수행, (T)배려와 신뢰 기반 조직문화와 연구 활동 등 4개 항목으로 설명했다. 임 신임 총장은 "이러한 정신을 지향할 때 GIST의 연구 성과는 창업과 혁신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총장은 GIST를 아시아 AI 중추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FAB를 설치하고, AI 정책전략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임기 내 목표로는 QS 세계대학평가 100위권 이내, 국내 7위 이내 도약을 내세웠다. 현장 중심 실사구시형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기 내 200억 원 규모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일은 임 총장의 또다른 목표다. 임 총장은 기금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에 연구 및 의료 장비 산업 태동의 씨앗을 뿌려 국가 차원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목표로는 국내 또는 해외에 GIST 분원 설립, 창업을 유인하고 역대 기업과 협력을 독려하는 지주회사 'GIST 홀딩스' 설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취임식은 규모를 대폭 줄여 간소하게 진행했다. 취임식에서 절약한 예산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원 투입된다.

김성우 기자
 kimseongu22ug@gm.gist.ac.kr

'너의 A ≠ 나의 A' ... 대학가 GPA 환산식 잇따른 개정

GIST는 2022년 7월 15일부터 평균 평점(GPA·Grade Point Average) 산정 기준을 개정·시행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GPA 환산식이 잇달아 재개정됐고, GIST에서도 재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스트신문>은 GPA 환산식 재개정 가능성, 유희리 논란의 원인 및 향후 대책을 취재했다.

대학마다 다른 GPA 환산기준

최근 대학가에서 GPA 환산식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GPA란 'Grade Point Average'의 줄임말로 평균 평점을 의미한다. 각 대학은 4.5학제 또는 4.3학제를 채택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GPA를 계산한다. 환산점수는 이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GPA 환산점수는 대학마다 다른 성적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국내외 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입시, 기업 채용 과정에서 주요 평가지표로 사용된다.

하지만 대학마다 GPA를 백분위로 변환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같은 학점일지라도 출신 대학에 따라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A0(4.0)라도 학교별 백분위 환산식을 적용하면 ▲GIST 94.3점 ▲서울대 96.0점 ▲KAIST 96.7점 ▲연세대 97.0점이다. 평가 기관에서 대학별 환산식 간 유희리 차이를 상세히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GIST 내에서도 GPA 환산식 재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턱대고 올리다간 GPA 공신력 하락해 <지스트신문>은 GPA 환산식 유희리 논란과 재개정에 대한 학부 재학생과 졸업생의 의견을 묻기 위해 17학번 이

대학별 GPA 백분위 환산점수

	GIST	고려대	KAIST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학점체제	4.5	4.5	4.3	4.3	4.3	4.3
A0	94.3	95.0	96.7	96.0	97.7	97.7
B+	88.6	90.0	88.9	89.0	91.4	90.6
B0	82.9	85.0	85.6	86.0	87.4	87.4

* GIST 환산식(2022년 7월 개정): 60+{(GPA-1.0)*40/3.5}
 * 출처: 각 대학 홈페이지

삼화 = 김수경 기자

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뤄졌으며, 총 67명이 응답했다.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8.43%p다.

< 다음 면으로 이어짐 >

대학

GIST도 GPA 환산식 재개정 물결 타나?

< 1면에서 이어짐 >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현 GPA 환산식 재개정 논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PA 환산식 재개정에 찬성한 응답자의 비율은 92.5%(62명)로 재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찬성 의견을 표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개 개인의 역할을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GPA 환산점수에 공정성은 필수”, “상대적으로 학점 취득이 어려운 GIST에서 GPA 환산식 재개정은 모든 학생에게 필수적”, “장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조속한 대처로 피해 학생을 줄여야 함” 등을 지적했다.

한편, 반대를 표한 응답자는 “무분별한 재개정으로 환산점수의 변별력 상실이 우려됨”, “대부분의 대학원은 정성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GPA 환산식 재개정은 큰 영향이 없을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GPA 환산식 간 유틸리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GPA 환산식 간 유틸리티 차이에 대한 평가 기관의 고려 부족’(71.6%)이 뽑혔다. 이어, 특정 대학원 및 대기업에 대한 경쟁률 증가(49.3%), 대학 간 환산식 연쇄 개정(46.3%), 코로나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28.4%) 등이 뒤따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일부는 “더 많은 언론, 학교, 학생 단체가 GPA 환산식 차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평가 기관별 자체 환산기준 설정 ▲GIST에서 선제적으로 더 유리한 환산식 도입 ▲교육부 및 산하 기관에서의 총괄적인 GPA 환산기준 제시 등을 대차 방안으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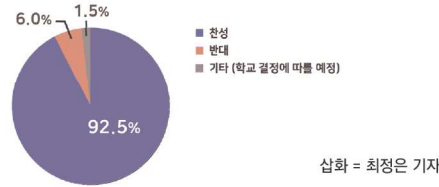
GPA 환산점수 속 진실, GIST의 판단은

지난 2022년 4월 GIST 청원에 GPA 환산식 개정 요구가 올라오자, GIST는 2022년 7월 15일부로 GPA 환산식을 개정·시행했다. 해당 산정 기준은 교무처 내에서 1차 검토를 진행한 후, 처장 회의, 전 학부(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후 학생 청원 및 타 대학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학적팀에 따르면 개정된 환산식을 통해 학생별 GPA에 따라 0~1.3점의 백분위 환산점수 상승이 확인됐다.

GPA 환산식 재개정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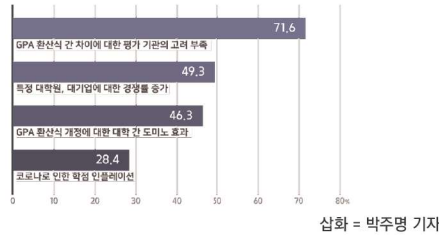
(응답 대상: GIST 재학생 및 졸업생 67명 / 단위 : %)

■ GPA 환산식 재개정 의견 조사



삼화 = 최정은 기자

■ 대학 간 GPA 환산식 차이의 문제 소지 의견



삼화 = 박주명 기자

하지만 대학가에서 GPA 환산식을 도미노식으로 개정하자 GIST 내부에서도 이목이 쏠렸다. GIST 청원 등을 통해 환산식 재개정 요청이 꾸준히 들어왔다. 학적팀은 “현행 환산식이 학생들에게 현저히 불리함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현재 학점 환산점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부와 대학 협의회에서도 표준화된 GPA 환산식 제도 개선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정책 변화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여전히 환산식 제정 및 개정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실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1항은 ‘성적의 관리’를 학교장의 권한인 ‘학칙’의 범주에 포함한다.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소속인 A씨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GPA 환산식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 당국이 대학 측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 신관률 회장(이하 신 회장)은 “총학생회에서도 환산점수 이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논의 중이

다. 이에 학점 환산과 관련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학생 의견 수집 방안을 밝혔다. 더불어 “8월 중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석회의가 개최된다.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다른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경우 해당 사안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어떤 정책을 수립할 계획인지 알아볼 것이며, 공동 대응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실제로 여러 대학원에서 GPA 점수를 환산하지 않거나, 평가 기관의 재량으로 정성 평가를 시행하는 사례도 조사됐다. GIST 대학원 입학팀은 “GIST 대학원 원서접수 시 백분위 입력은 불가하고, GPA 만 입력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KAIST 대학원 입학팀은 “지원자들의 GPA를 어떤 기준으로 환산하지 않고, 출신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GPA 성적 그대로 심사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GPA 체계를 위한 충분한 논의 필요해

GIST 학적팀은 “타 학교의 개정 동향, 교육부 입장, 학생과 교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긍정적으로 환산식 재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총학생회 신 회장은 “학생과 학교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새로 취임한 임기철 총장과 정기적인 미팅을 약속했다. 또한, 최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보고서를 공유하도록 의결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GPA 학점 환산 논란에 대해 더 깊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철저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더불어, “GIST 청원에 올라온 학생들의 의견은 총학생회의 입장 표명에 강력한 증거가 된다”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GPA 환산식 간 유틸리티 차이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입시 구조의 보완을 위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성실성과 꾸준함을 평가할 수 있는 학점이 변별력을 지녀야 하는 만큼, 입시 구조와 제도의 현실성을 고려해 신중히 개선해주길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천태성 기자
taesung1121@gm.gist.ac.kr

월드프렌즈코리아 IT 봉사단, 라오스에 가다

지난 7월 17일 GIST 월드프렌즈코리아 IT 봉사단(이하 IT 봉사단)이 교육봉사를 위해 라오스로 파견됐다.

월드프렌즈코리아 IT봉사단은 대한민국 정부 공식 파견 해외 ICT 봉사단으로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운영 아래에 있다. 이 기간은 2002년부터 전 세계 74개국으로 8,255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해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와 청년 지도자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GIST는 2014년 베트남으로의 파견을 시작으로, 총 114명의 학생이 ICT 봉사단원으로 참여해 교육봉사를 수행했다.

이번 IT 봉사단은 GIST에 재학 중인 학부생 12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원은 3개 팀(라오스타, 와안, 정수)으로 나뉘어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각 팀은 디지털 정부센터(Digital Government Center), 비엔티안 수도 기술개발센터(Vientiane Capital

Skill Development Center), 방비엥 에스닉 스쿨(Vangvieng Ethnic School)에 파견돼 정보통신기술 교육과 한국 문화 전파에 힘썼다.

<지스트신문>은 GIST IT 봉사단과 함께 IT 교육과 문화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Thavyboun PHOMMAKOTH 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Thavyboun Phommakoth 이고, “Takky”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디지털 정부센터(Digital Government Center, DGC)에 소속돼 일하고 있습니다.

IT 봉사단 교육활동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나요?

우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영광입니다.

저는 라오스와 한국 간의 문화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IT 봉사단원으로부터 프로그래밍 등의 IT 교육을 받으며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IT 교육 이외에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느낀 점이 있나요?

모든 나라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전통 놀이, K-POP, 한국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세계 주어진 기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비록 4주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IT 봉사단과의 추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 다음 면으로 이어짐 >

GIST 하태성 학생, INTARG 금상 수상 쾌거

GIST 기초교육학부 하태성 학생이 제 16회 국제발명혁신대회(International Invention And Innovation Show, 이하 INTARG)에서 '생수통 교체 장치(이하 발명품)'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5월 24일과 25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INTARG가 개최됐다. 해당 대회는 혁신적인 제품, 기술,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용화된 기술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혁신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명품을 평가하는 기준은 ▲혁신도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글로벌 제품과의 비교 ▲구현 및 상용화 가능성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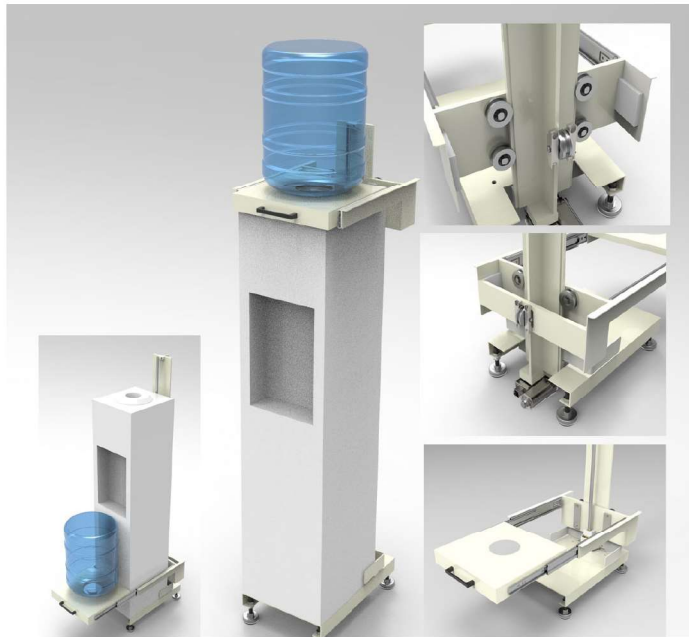
〈지스트신문〉은 하태성(기초, 23) 학생과 인터뷰를 통해 발명품과 INTARG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INTARG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발명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을 살려 나만의 특화된 장점을 잘 활용할 기회를 찾아본 결과였다. 처음에는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출전했고, 그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후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일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돼 다양한 아이디어로 발명대회에 여러 번 출전했다. 발명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여러 번 받고 자신감이 생겨 국제 발명대회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고, INTARG에도 참여하게 됐다.

발명품을 어떻게 고안하게 됐나?

고등학교 재학 중 선생님의 정수기 생수통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으로 학우와 함께 생수통을 교체했던 경험이 있다. 생수통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교체하던 중에 생수통을 떨어뜨려 학우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경험으로부터



하태성 학생이 고안한 '생수통 교체 보조 장치' 도안이다.

무거운 생수통을 떨어뜨리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힘이 약한 노인 혹은 여성이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경각심을 느껴 생수통 교체 보조 장치를 고안하게 됐다.

발명품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나?

생수통 교체 보조 장치에는 승·하강 동력을 제공하는 '버티컬 모터 (Vertical Motor)'가 설치된다. 지지 프레임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나사산이 회전축이 되며, 회전축은 버티컬 모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한다. 즉, 회전운동을 상하운동으로 전환하여 생수통과 지지대를 올리고 내리는 원리가 담겨 있는 장치다.

발명품의 우수성과 장점은 무엇인가?

규모가 큰 실내 사무실이나 작업장과

같이 수도관을 끌어오기 힘든 환경에서 마실 물을 제공하고자 할 때 정수기를 많이 사용한다. 이때 정수기에 용량이 큰 생수통을 장착하는데, 그 무게가 20kg에 달한다. 생수통을 들어 올리고 돌려 정수기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근력과 요령이 필요한데, 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발명품에서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발명 과정에서 지지 프레임이 무거운 생수통의 무게에 의해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부하를 불균일하게 만들어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회전축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하고, 지지 프레임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베어링 어셈블리를 설치했다.

특히 출원 등 발명품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계획이 궁금하다.

'생수통 교체 보조 장치'는 현재 특허 출원까지 한 상태다. 현재 창업을 꿈꾸고 있으며, 특허 등록까지 되면 추후 창업 아이템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상용화하기에는 소음, 속도 등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점차 보완할 계획이다.

INTARG에 참여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그 극복 과정이 있다면?

국가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대회인 만큼 과거에 출전했던 국내 발명대회보다는 아무래도 적지 않은 부담을 받았다. 수상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지만 '도전'에 의미를 두기로 다짐했다. 이를 통해 부담감과 걱정을 털어내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하태성 학우에게 INTARG는...

이전에 해왔던 국내 대회에서도 멋진 아이디어와 뛰어난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세계'라는 무대에서 더욱 뛰어내고 멋진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귀중한 경험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삶에 큰 동기부여가 됐고,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예기치 못하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많은 교훈과 경험이 담겨 있는 상이고, 이 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내 생각과 실현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며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도은 수습기자 ehdm27118@gm.gist.ac.kr

IT 지식 나누고, 문화 교류로 깨달음 얻어

<2면에서 이어짐>

나중에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다양한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교육봉사에 참여하는 동안 좋았던 점이 있었나?

프로그램 동안 많은 친구와 소통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라오스의 여러 장소에 같이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꼭 다음에도 만날 기회가 생기를 바랍니다.

IT 봉사단원으로 디지털 정부센터에 파견돼 교육 봉사를 수행한 이규서(기초, 23) 학생은 "해외 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마음가짐과 건강한 몸

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밝혔다. 이 학생은 "마음이 맞는 팀원을 만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합격한 사람에게 학교 차원에서 팀을 꾸려주는 제도가 좋았다"라고 회상했다.

이 학생은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출국 전부터 잦은 회의와 회식으로 봉사단원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점을 꼽았다. 이어 해외 봉사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줄이고 참여를 독려하는 GIST의 IT 봉사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고 전했다. 이 학생은 "서로 다른 두 나라가 함께 모여 일하고 문화적 교류를 나누는 것이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나라의 언어와 역사, 문화가 나와 관

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한 관광이 아닌 문화교류를 통해 경제, 과학, 인문학적으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말했다.

IT 봉사단 파견 학생들은 7월 17일부터 4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월 13일 귀국했다. 봉사단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라오스의 문화를 접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파견은 봉사단원들의 봉사 정신 함양과 IT 지식의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 활동하게 될 IT 봉사단원들의 행보 또한 기대하는 바이다.

기획

임기철 총장에게 ‘아직 없는 길’을 묻다

공백기를 거쳐 GIST에 새로운 총장이 온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지스트신문>은 임기철 신임 총장을 만나 현재 GIST가 당면한 과제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 질문했다. 임 신임 총장은 산학 협력, 기업이 정신을 강조하며 미래 30년 혁신 전략을 설명했다.

총장으로 선임된 소회와 포부가 궁금하다.

지난 10년은 내부 교수가 총장을 역임했는데, ‘일부에서는 제가 외부에서 왔다고 해서 학교 사정을 잘 모르는데 과연 경영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하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저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 공학도로서는 국내 최초로 뛰어들었다. 이후에 경제학도 공부하며 정책, 전략 분야에 거의 30년 동안 몸담았다. 요즘 대학에서 ‘핫 이슈’ 내지는 인기 있는 분야가 되는 기술경영 분야에서 교수로서 4년 이상 재직했기 때문에 우리 GIST의 미흡했던 부분과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충분히 과거의 영광을 되돌릴 수 있는 소임을 충분히 해내리라고 생각한다.

화려한 약력이 눈에 띄는데, 어쩌다 경제학 석사를 따게 됐나?

말씀드렸듯이 공학 박사로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과학기술 정책에 뛰어들었다. 공공재인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비에 투입하면 민간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연구비 투입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를 연구하려면 경제학, 특히 공공경제학 개념이 필요하다. 경제학 개념이 반영된 정책을 만들고 연구계와 산업계로 확산시키는 전략은 경제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연구한 다음 경제학까지 공부하게 됐다.

전문 분야인 기술 정책 분야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과학기술 정책은 공공재와 같은 성격을 띤다. 우리는 과학기술 연구를 통해 지식을 끊임없이 창출하는데, 그 지식이 과연 경제적 성과로 얼마나 연결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GIST에서도 학생과 졸업생 여러분이 창업하고 있는데, 실제로 창업 이후 성공에 이르는 기업은 10%에서 2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한된 연구비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사용할지 살피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에는 반드시 시정 조사와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미래에 어떤 문제가 닥칠 것이고 해당 문제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과학기술이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먼저 연

구해야 한다. 그런 뒤에 연구비를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면 그 이후 현장에서 연구가 시작된다. ‘연구 성과가 시장에서 어떤 형식, 형태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핵심이고, 그렇기에 우리 학생들도 위 과성을 기업가 정신과 연계해서 공부해야 한다.

기술 혁신의 전체 과정, 미래 예측도 연구를 많이 했다. 난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 예측, 연구비 자원의 배분 과정, 성과를 평가하는 메커니즘 등을 실제로 연구해 본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 GIST에서 교육·연구 과정을 거쳐서 실제 창업에 이르는 길을 단단히 마련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영할 생각이다.

GIST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라 보는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GIST가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KAIST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0년을 거쳐오는 동안 우리의 역량이 퇴보하거나 내지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학교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과 직원들의 실망감 등이며, 이는 곧 연구에서의 동기부여와 학교의 미래를 기화하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결림돌이 됐다.

임기 내 목표가 궁금하다.

조직 내 불협화음을 안정시키고,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3대 경영 전략 중 하나로 ‘하모니업’을 제시했다. 화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3대 경영 전략 중 ‘포텐셜 업’과 ‘벨류업’은 현 조직 체계를 가지 장충형으로 혁신하고, 지식 창출 메커니즘의 잠재력을 키우자는 얘기다. 연구 성과를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실로 잘 꿰어서 하나의 목걸이를 만들 때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시장에서 선택될 수 있다. 결국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지식을 창출해서 우리 GIST 가족 모두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4년 후에는 100위권 내로 분명히 끌어올릴 수 있다.

시장에서 원하는 창업 등으로 우리 연구 성과의 가치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발전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혁신기금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까지 일으킬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발전기금을 현재 90억 원 수준에서 임기 내에 2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려고 한다.

좀 더 포부를 밝힌다면 국내 또는 해외에 GIST 분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리 GIST 식구들이 해외로도 나가서 연구하고, 개도국들에 우리의 연구 경험, 경제적으로 발전한 성취 성공 경험을 확산하는 계기도 만들고자 한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활동해야 할 무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우리 ODA 자금으로 해외에 지원하는데, GIST가 그 연구비나 자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가 기초를 다져놓겠다.

총장 첫 행보로 산학협력협의체를 개최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창출한 지식 가치를 실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가치로 환원 전환을 한다고 하면 결국 산업체,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테면 외부 기업과 우리 연구팀, 1대 1 결속체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이전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도 산업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광기술, 광산업을 처음 시작했고, 그 성과가 많이 축적돼 있다고 본다.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장비, 의료 장비 산업을 광주·전남 지역에서 꽃피우려고 한다. 사업 추진단이 학교 내에 구성될 것이고, 부총장이 직접 추진단장을 직접 맡을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부품 소재와 장비, 이른바 소·부·장 업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 의료 장비 산업을 기획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해내리라 본다. 그런 일환으로 산학협력에 계속 중점을 두어 경영할 생각이다.

GIST 구성원 간 갈등 관리 방안이 궁금하다.

화합, 말로는 참 쉽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번에 팀장급 인사를 하면서 각 팀장에게 우리 학교의 문제점과 ‘나를 미래에 어떻게 맞춰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팀장마다 15분간 자기 진단과 우리 학교를 진단하며 문제점도 찾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이야기를 나눴다. 이른바 킥터 인터뷰다. 이런 과정을 거쳐 팀장을 임명했고, 일반 직원들에게도 GIST에 대한 SWOT 분석,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는 무엇이고 위기는 무엇인가. 이런 분석과 자기 진단을 요청했다.

문제가 많다. 화합이 안 된다,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조직과

자신을 진단해보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무엇을 개선해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구성원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고, 가장 적합한 곳에 인재를 대응하면 훨씬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좋은 분위기로 생기는 에너지를 향후 우리의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불안과 내부의 문제점들, 불미스러운 일이 줄어들고 각자 맡은 바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기관에 걸려있는 ‘GIST-Up&Together GO’ 플래카드는 함께 GIST의 품격을 높여자는 다짐이고, 이는 GIST 가족 전체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이는 일종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혁신이란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GIST도 새로이 진취하자는 것이 제 소신이고, 그렇게 경영할 생각이다.

GIST의 연구 역량과 연구 감점 분야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리 연구 역량이 너무 과소평가 돼 있다고 본다. 평가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 평가에 임하는 우리의 전략적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만든 구슬을 잘 꿰어낸다면 QS 세계대학평가 200위권으로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장실에 미래전략실을 만들어 기관평가부터 시작해서 대외적인 명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관리할 것이다.

저는 무엇보다 GIST가 아시아의 AI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AI, 반도체, 광학 기술 분야, 그리고 소재, 생명과학 분야에서 우리가 이미 연구 역량을 많이 축적했다. 우리 학교에 의사 출신 과학자와 함께 의과학 분야도 적극적으로 확충하면, 광주·전남 지역의 연구 의료 장비 산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리라 본다. AI, 반도체, 의·생명 분야는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감점 분야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이전보다 인재 유치가 자유로워졌다. 해외 스타 석학 유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GIST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GIST 교수진은 200여 명 남짓이다. 총 교수 규모가 250명 정도는 돼야 중추 연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가능하다면 석학 50명 정도를 더 모시고 싶다. 취임사에서 약속하기는 어려웠다. 교수 총원이라는 연구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다음 면으로 이어짐>

폭우 가니 폭염 온다, 이어지는 ‘복합재난’

지난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가 극한 호우로 침수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재민은 2만 명에 이르렀다. 게다가 폭우가 끝나자마자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었다. 앞으로 증가할 ‘복합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47명 사망, 3명 실종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내린 폭우로 제방이 터져 인근 하천수가 궁평2지하차도로 쏟아졌다. 침수 사고의 사망자는 같은 달 18일에 발견된 마지막 실종자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호우 경보가 내려졌음에도 사고 지역에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아직도 사고의 책임을 두고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침수 위험에 대한 신고에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못한 관리 당국의 업무상 과오가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기후재난에 무력한 기존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해 피해는 오송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극한 호우가 이어졌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누적 수재민은 약 2만 명이었다. 게다가 사망자는 47명, 실종자는 3명이 발생했다. 산사태로 민가가 피해를 입는 등 시설 피해도 만 건을 훌쩍 넘었다. 농작물 침수와 가축의 폐사 신고도 잇따랐다. 복구가 더뎠던 도로의 통제가 길어지기도 했다.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해는 호남 지역도 활궤고 갔다. 가뭄에 시달리던 광주 동북댐은 7월경 저수율이 100퍼센트에 달했다. 7월 말에는 익산 용안면에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져 인근 시설과 농경지, 축사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비 끝나니 더위, 그 이름은 ‘복합재난’?

폭우가 끝나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지난 여름은 전 세계적으로 기온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최고 온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은 2년째 기온이 41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겪고 있다. 인도 북부와 미국, 일본에는 사상 최악의 폭우가, 캐나다에서는 수백 건의 산불이 일어나는 등 기후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런 기록적인 재난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는 “전체적인 강수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단시간에 좁은 지역에 극한 호우가

내리는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며 홍수 대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과거 장마와 다른 새로운 기후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강수량에 대한 데이터는 매우 부족하고 기후 모델을 통한 분석에도 한계가 있어 정확한 원인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극한 호우와 같은 현상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며 주의를 요했다.

진정한 문제는 단순히 극한 호우같은 현상의 증가가 아니다. 올해 한국에서도 폭우 직후, 일 최고 체감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관측됐다. 윤 교수는 “학계에서는 복합재난(compound extreme)이라고 부른다”며, 이러한 재난이 앞으로 잦아질 것을 우려했다.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 일어난 사례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벌써 수차례 발생했다. “확률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 예상했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윤 교수는 말했다.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의 목소리

최근 기후재난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이젠 끝났다”와 같은 자포자기식의 반응을 쉽게 볼 수 있다. 기후재난은 막을 수 없는 것일까. 윤 교수는 “절대로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교수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0.5도만 막아도 많은 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평균기온이 최대 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 교수는 복합재난을 비롯한 기후 재난이 특정 지역을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곡창 지대를 소멸시키는 등 예상조차 힘든 정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갈 세대, 즉, 10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인 IPCC 보고서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세대 간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감이 명백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6명의 청소년이 몬태나주 정부를 대상으로 화석연료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걸어 승소하기도 했다. IPCC도 현 기후변화 대책이 소극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낸 건 청소년이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탄소 중립과 기타 정책을 요구하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변화를 불러올 열쇠다.

배연우 수습기자
bae-yeon-u@gm.gist.ac.kr

“학생이 즐거운 학교 분위기 만들겠다”

<4면에서 이어짐>

쉽지는 않지만, 정부로부터 새로운 사업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 설득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0억 원 발전기금을 혁신기금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발전기금이 마련된다면 기금 교수로서 10분 정도는 초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세계적인 분야에서 석학 초빙과 우리 GIST에서 스타 과학자 배출을 위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기대하는 수준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GIST 학부 총학생회에 기대하는 역할이 궁금하다.

20세기 후반, 과거의 총학생회는 주로 정치적인 성향 또는 이념을 갖고 활동을 많이 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의 미래세대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지역과 국가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주면 좋겠다.

학창 시절에 했던 총학생회 활동이 두고두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됐으면 좋겠다. 학교도 총학생회를 이끄는 학생

간부에게 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서 상응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교수진과 상의하겠다.

지난번에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를 했다. 총장실은 늘 열려 있다.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열린 경영을 해나가겠다.

GIST 학생들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청년기는 위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첫출발이다. 학생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서 짧으면 4년, 길면 거의 10년 가까이 지내게 될 텐데, ‘청년기에 진정한 의미 있었다’, ‘나의 인생에 있어

서 방향타가 되었다’같은 생각이 들게끔 학교생활을 즐겨달라. 학교 차원에서 학생 농구단 창립이나 4대 과기원과 문화축전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해 학생이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마련할 것이다.

공부, 연구 활동이 경쟁으로만 이루어져서도 절대 안 된다. 학업 한 가지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주위 친구들과의 네트워킹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학창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갔으면 좋겠다.

김성우 기자
kimseongu22ug@gm.gist.ac.kr

기획

당신의 눈에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이유

2022년도 기준 등록장애인은 약 260만오로 전체 인구 대비 20명 중에 1명 꼴이다. 하지만 많은 비장애인의 일상, 특히 대학교에서 장애 학생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장애 학생의 일상 속 권리를 보장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증거다. 이에 GIST를 포함한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 현황을 취재해봤다.

왜 장애 학생은 뉴스나 책에서만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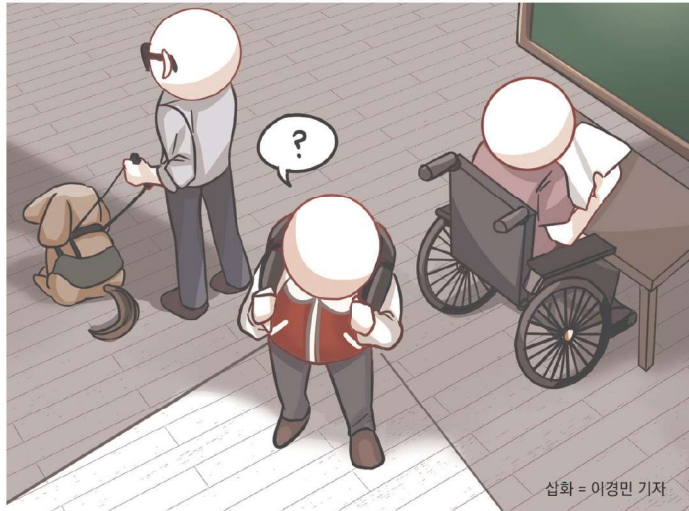
신체나 정신적 장애, 혹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고 배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장애 학생 수는 2021년 기준 9만명에 달하지만 대학 진학률은 15%에 불과했다. 약 70%인 장애 학생 진학률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누군가는 장애인이나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이 장애 학생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것이 그 원인이라면 어떨까.

22년도 기준 특수학교는 192곳 중 3분의 1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러한 편재화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은 등교를 위해 이사까지 감수한다.

시각장애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자. 모 지방 맹학교의 경우 일반 교과서의 내용을 학내 점자 출력기로 출력해 사용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 국내 교과서들의 점자화가 의무화된 것은 2017년으로 비교적 최근이고, 점자로 발행되는 문제집은 EBS 수능 교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집도 19년도에는 검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행되고 20년도에 비장애인용보다 2~3개월 늦게 나와 논란이 일었다. 기본적인 교과서와 문제집조차 비장애 학생과 다르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 환경의 불평등을 겪는 것은 시각장애 학생만이 아니다.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강의 내용을 대신 필기해주는 대필 도우미가 배치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고, 대필이 얼마나 정확히 내용을 전달해줄지도 미지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엔 강의실로 가는 것만 해도 고역이다. 지체 및 지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자들은 다양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경증 장애의 경우 제대로 된 보조 지원 없이 교수 재량에 떠넘기는 사례도 있다. 각 학교의 내규에 따라 경증 장애 학생에



삽화 = 이경민 기자

대한 지원 기준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편차가 생기는 것이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시기, 경증의 청각장애를 갖고 있던 학생이 대학으로부터 대필 지원을 거절당했다. 대면 수업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도 교수님의 입 모양을 보고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비대면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카메라 앞에 서지 않는 이상 내용 파악이 힘들다. 이런 상황에 대필 지원까지 거절당한 것이다. 이렇듯 많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

대학교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현재 교육부와 대학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2022년도, 중증 장애인 박혜린 씨는 KAIST 졸업해 대학원에 입학했다. 박 씨는 뇌성 마비로 걷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휠체어 사용자다. 학교에 최초로 입학한 중증 장애인이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강의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등의 건의를 했고 KAIST가 이를 수용하였다고 졸업사에서 밝혔다. 현재 KAIST 학생지원팀에는 장애 학생 복지 업무가 지정돼 있으며 매 학기에 1회 이상 장애 학생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DGIST의 경우 21년도 기준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시기 KAIST에는 총 5명, GIST에는 1명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이었음을 들며 충분히 장애 학생이 입학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DGIST 내부에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없으나 관련 업무는 학생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과학기술원 외의 대학들도 살펴보자. 재학생이 많은 국립대학 중 대부분은 장애학생특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장애 학생 지원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 체계가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 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며 장애 학생의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르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그럼, 우리가 다니는 GIST는?

그렇다면 GIST는 어떨까. 학생팀 김성주 선생님의 답변에 따르면 “우리 원은 매년 장애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2년 전 취재에서도 학생팀은 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도 동일한 것이다. 또한 공식적인 장애 학생 지원부서는 학생팀이지만 원활한 접근성을 위해 총학생회와 상담센터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자체 매뉴얼을 운영 중이다.

학생팀은 현재 GIST에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경증으로 별도의 지원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장애 학생 스스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 사실을 밝히기 꺼린다. 개인적인 의사를 먼

저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장애 학생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GIST 내 별도의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점자화 안내문을 설치하고 기숙사 내 장애인 전용 호실도 구비돼 있다. 또한 장애 학생 입학 및 요청이 있을 경우 맞춤 지원과 보조공학기기도 지원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른 대학의 사례처럼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이 없는 이유에 대해 학생팀은 “해당 사업은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이 명시돼야 하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며, GIST의 경우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GIST는 법령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짓고 장애 학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 장애 학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었다. 다만, 근 5년간 실제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장애 학생이나 중증 장애 학생이 입학한 적은 없다. 실제로 중증 장애 학생이 입학했을 때 어떤 대응과 인프라가 필요한지는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문제

비장애인의 눈에 장애 학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필수교육 과정부터 시작되는 교육 환경의 불평등, 개선되지 않는 사회적 시선, 선례가 없기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 없어도 모든 대학에 모든 장애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그렇기에 변화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는 단지 당사자 몇 명이 경험담을 발표하거나 사회 운동단체의 시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당신의 눈에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은 수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장애인이 사회로 나아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배연우 수습기자 bae-yeon-u@gm.gist.ac.kr



제보 및 기고를 기다립니다.

궁금한 일이 있나요? 지스트신문에 취재 요청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자유로운 주제의 기고문 환영합니다!

지스트신문이 학내구성원들의 다양한 제보 및 기고를 기다립니다.

Email) editor@gist.ac.kr
Tel) 062-715-5810
H.P) 010-9550-5902

f 지스트신문

-P 지스트신문

Difficulties faced by international students

Korean students are well-known for their educational fervor, and universities are no exception. Although college students have much more time to enjoy their campus life than high school students, they still tend to be highly motivated to score well on tests and assignments. International undergraduates from all over the world try to harness their work ethic to fit into the university. Undergraduates are faced with a plethora of challenges as they try to navigate their way out of the cocoon of learning years to fly and expand their horizons.

Before the hurdles of education can even begin to present themselves, the students are confronted with the intricacies of settling down in a new country. "Without a phone number, I was often unable to order anything online and restricted from using a lot of convenient services for around four months until I could get my alien registration card," said one international student. Students are unable to use any online delivery services or order food. This poses a major difficulty, especially for those students who have dietary restrictions and cannot eat in the cafeteria. This leads us to another very common problem: "My card was not working in the cafeteria or GS25, leaving me with no choice but the second-floor student restaurant or cook my

own food, which is quite time-consuming." According to survey data, this problem occurred for 65% of the students.

Apart from an exceptional academic atmosphere, international students at Korean institutions face two major obstacles: course registration and the language barrier.

While the basic science classes are provided in English, many major classes are in Korean, leaving students with no other option but to be left on their own with particularly limited learning resources. This brings about difficult times, but many students manipulate the odds into a source of challenge to raise their spirits. One international student from the Department of Life Science stated, "Your environment can make or break you, so my time at GIST has been a privilege in the sense that even with the odds stacked against me, having many bright and diligent Korean students in my class in turn makes me want to polish my academic performance." She has put in great effort to ensure the classes are provided in English to prevent strategic disadvantag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One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previously in the Life Science department ended up changing her major to a department with more international students so she would have an easier time obtaining her classes

in English. Many courses that are required to graduate are not provided in English. Another central problem towers over this one: many courses that are listed as being taught in English are taught in Korean. Data shows that a staggering 60% of the classes listed as being taught in English are taught in Korean. One student who took such a course was simply told to "learn better academic Korean" when she prompted the professor to incorporate some English in the lecture.

Korean universities are infamous for their fast-paced, fiercely competitive, first-come, first-served course registration systems. Even Korean freshmen generally struggle with this and seek guidance from their seniors with tips on how to enter course codes quickly and an idea of which courses are likely to fill up faster. Learning tips and going to a PC room with faster wifi in order to check exact server times during course registration ensures a more successful course sign-up.

Course registration, more often than not, proves to be extraordinarily challeng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left to their own accord. Students are often limited to the dorm, where the Wi-Fi connection is significantly slower than in PC rooms, where most other students are. Some students might be forced to do

course registration in their own country, which only adds to the waiting times in the queue for registering for each course.

The international students are handed out PDFs and lengthy handbooks, but this has largely proved to be inadequate. According to survey data, 80% of the students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 information provided solely in the handbook and PDFs. Many suggested the process be made easier and more seats be added for greater convenience for the new international students.

Continuing the topic of course registration and language barriers, GIST does provide classes to facilitate the student's ability to learn Korean, but they are severely limited in capacity, and often, the freshmen who need them the most are unable to get them. The class capacity is never increased to accommodate them. Around 30% of freshmen are unable to register for the Basic Korean course each year.

While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lives of international undergraduates, who are a rather recent addition to the gist community, there is a long way to go before we finally fill in the overlooked gaps that hinder the smooth settling in of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r Faisal, Kudsia
(kudsia19@gm.gist.ac.kr)

Gi-Cheol Lim, The new GIST president

The GIST Board held a meeting on July 4 to finally elect Dr. Gi-Cheol Lim as the ninth president.

The new president, Lim began his term of office on July 7 after being approv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The term of office is four years.

H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chemical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master's degree in engineering Ph.D. from the same university's graduate school. Also, he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economics from Sogang University. He has worked as a visiting faculty at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IISTP) in the United States, as Deputy Minister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and Vice President at the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as science and technology secretary of the Blue House. Afterward, he has served as a member of the Presidium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Director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and Vice President of the Korea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He also served as a collaboration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On August 16, GIST held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the ninth president of GIST at the Dasan Hall of the Oryong Hall. In his inaugural address, he showed a strong commitment to innovation, saying, "Our potential is limitless, and we set our limits.", "Innovation, if there is no way, we make it." and "I will accompany you on the journey of innovation as a guide with the enormous responsibility of being president." He proposed three strategies for innovation : strengthening GIST's potential capabilities and restructuring the value-creating organization, fostering community spirit through leadership of sympathy and

embracement, and establishing a system that converts the knowledge value of GIST into business value.

As 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ed by the state, the values and goals that GIST should have were explained by taking the acronym of GIST. G is for the creation of Global knowledge assets, and I i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insight. S is for conducting a Study to overcome national crises, and T is for caring and Trust-based organizational culture and research activities.

He said, "In this spirit, GIST's research results will continue to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national economy."

His goals during his term of office include ▲becoming one of the top 100 in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and one of the top 7 in Korea's ▲transition to education, which seeks truth with the centered

▲establishment of semiconductor FAB ▲establishment of AI graduate school of policy and strategy ▲establishment of GIST branches in Korea or overseas ▲establishing a holding company 'GIST Holdings' to attract start-ups and encourage cooperation with companie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he emphasized that he would create a 20 billion development fund within his term of office to sow the seeds of the birth of the research and medical equipment industry in Gwangju and Jeonnam and make it a growth engine at the national level. In addition, he said that he would lead GIST to establish itself as a central AI institution in Asia.

On the other hand, this inauguration ceremony was held in a simplified manner. The budget saved through this will be put into support for the thousand-won breakfast business.

Reporter Seongu Kim
(kimseongu22ug@gm.gist.ac.kr)
(translation: Suhyeon Kim)

오피니언

독자기고

병적 자본주의, 친밀성 상실의 시대

내가 경험한 우리 청년세대,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허나 웬지 모르게 친절함 이면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진다. 더는 대학 강의실에서 앉아서 사람과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서로 말 걸지 않는 것이, 무관심이 미덕이라 여겨진다. 상대를 철저히 존중해 버린 나머지 상대방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셈이다. 이런 현상을 '친밀성 상실 현상'이라 부르고 싶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 친밀성이 점점 상실되어 간다.

친밀성; 다름과 차이를 포용할 힘이 필요하다

흔히들 누군가와 친하면 같은 것 때문에 친해진다고 생각한다.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 오로지 같은 것을 바탕으로 뭉치는 것은 편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같은 것만으로 뭉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

유리상종이라는 사자성이 있다. 비슷한 사람들과 모인다는 의미다. '비슷하다'는 같진 않지만 닮은 점이 있음을 뜻한다. '닮았다'는 미묘하게 다름을 뜻한다. 서로 다르기에 끌리고 친해질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당신과 정말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처음엔 공통점을 중심으로 모이더라도, 결국 다름과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름과 차이를 포용할 힘이 필요하다. 이를 해내지 못하면 누군가와 깊게 가까워질 수 없다. 겉으로만 친해 보이는, 아주 얇은 수준의 관계에서 그친다.

우리 사회에 친밀성이 점점 사라진다. 다름과 차이를 포용할 힘도 줄어든다. 다름을 이해하기는커녕,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혐오하기 시작한다. 남녀 갈등, 외국인 혐오, 학교 폭력

등. 그렇게 우리 사회는 점점 따뜻함을 잃어간다.

우리는 어쩌다 친밀성을 잃어가게 되었을까?

병적 자본주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물질적 풍요를 좇는가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 세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대에 태어났다. 청년 세대는 물질적 풍요를 당연시 여기고 더 큰 물질적 풍요를 좇는다. 부동산, 투자, 코인, 창업 등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은 허상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의 바람을 품어줄 수 없다. 부의 대부분은 이미 극소수가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늘구멍 싸움에 불과하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진다.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경쟁으로 여겨진다. 끝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 타인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았음에, 나보다 뒤처진 타인이 있음에 안도한다. 타인의 불행이 있어야 나의 행복이 가능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한다. 결국 타인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듯하다.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라고들 말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되는 경쟁자인 셈이다.

개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다. 물질적 풍요를 좇는 바늘구멍 싸움에 그저 뛰어드는 수밖에. '일단 돈 벌고 보자!'라는 추종이 사람들을 지배한다. "돈 벌어서 뭐 하겠어?"라고 물으면 "음... 좋은 차 좋은 집 사려고"가 대부분이다. 좋은 차와 좋은 집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자가 되고 싶은 구체적 목적이 없는 셈이다. 목적이 구체화되지 않으니, 수단과 목적의 전복이 일어난다. 돈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전락한다. 그렇

게 수단의 노예가, 돈의 노예가 되어간다.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 돈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버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문제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이 오직 돈만 좇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병적 자본주의'라 부르고 싶다. 병적 자본주의 아래 생존 경쟁 속에서 정신적 풍요로움은 잊는다. 가혹한 경쟁 속을 살아가는 청년들, 그들에게 누군가와 친해질 시간적, 심리적 여유는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게 친밀성은 점점 사라진다. (친밀성 상실의 원인은 다양하다. 본 글에서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를 꼽아 소개할 뿐이다.)

친밀성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병적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를 잘살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본다.

무엇을 매개로 연결될 것인가

과거에는 친밀성의 주체 단위가 가족이었다. 가족끼리 친하면, 부모끼리 친하면 자연스럽게 자식끼리도 친해졌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누군가와 쉽게 친밀해졌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랬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친밀성의 주체 단위가 개인으로 바뀌었다. 이제 누군가와 친밀해지려면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체적으로 누군가와 친밀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어렸을 적 이런 말을 들어봤을 테다. "학교 가서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그런데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가? 사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사이가 좋으면 좋은 사람, 사이가 나쁘면 나쁜

사람이다. 내게는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와 친밀해질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사이로 만날지, 무엇을 매개로 연결될지를 고민해야 한다.

책을 매개로 만나면 책 친구, 술을 매개로 만나면 술 친구, 철학을 매개로 만나면 철학 친구가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좋은 매개로 만나면 좋은 친구, 나쁜 매개로 만나면 나쁜 친구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매개가 무엇인지, 어떤 매개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지를 알아내야 한다. 더 나아가 매개를 확장해야 한다. 매개가 다양해질수록 다양한 사람과 연결되어 삶이 풍요로워지고 만족스러워지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도 다양한 매개로 연결될수록 관계는 건강해지고 풍성해진다.

모든 관계는 끝이 있다. 그 끝에서는 반드시 상처가 따른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관계 도중 발생하는 감정 소모와 관계 끝에 오는 상처를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즉, 부서질 용기가 필요하다.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환대하는 마음가짐을 토대로 부서질 용기를 내어라. 이정한 생각이었습시다.

(철학자 박구용의 논문 <친밀성 구성과 구조의 전환>, 작가 임의진의 책 <숫자 사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이정환 (전령, 19)

사	■사임	
	정기자	송혜근 이재희
령		

지스트신문

2016년 4월 11일 창간
발행인 임기철
주 간 홍성민 편집장 김성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LG도서관 102호 GIST신문사
전화 062-715-5810
이메일 editor@gist.ac.kr 웹사이트 gistnews.co.kr
페이스북 facebook.com/Gistsinmoon
인스타그램 @gistnews_official